

대학생 기자단, 그들의 열정과 함께 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객석지원팀 김 기원

지난 7월 11일 새벽 5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다음(DAUM) 우리농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과의 「쇠고기이력추적제(이하 이력제)」에 대한 동행취재를 위해 우리 일행은 서둘러 출발하였다. (주)강원엘피씨(강원 원주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성만점의 18명 대학생 기자단과 가벼운 인사 후, 등급판정사의 이론교육으로 하루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위생모, 가운, 덧신으로 완벽한 변신을 하고 도축장 입구에서 손을 씻은 후 낮선 도축장을 지나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예냉실에 도착하였다. 예냉실에 걸린 쇠고기 2분체를 본 학생들은 "우아~~ 진~~짜 크다. 그런데 추워!"를 연발하며 발만 구르더니, 등급판정과정 설명을 시작으로 도체에 찍힌 빨간 등급인(印) 설명, 알쏭달쏭한 부위를 직접 짚어주면서 알려주자 예냉실은 어느새 열띤 취재현장이 되었다. "등급 쇠고기 등심 단면적의 환상적인 마블링을 보여 정말 예쁘다. 맛도 있겠는 걸!"하며 사진 찍기에 바빴고, DNA동일성 검사를 위한 샘플 시료를 보여주자 "잠깐만요! 샘플 좀 들어 주고, 가만히 계세요"라는 주문에 등급판정사는 꼼짝없이 손모형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취재한 내용으로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식객」의 두 주인공인 성찬과 봉주가 경합하는 과정 중 등급판정 부분에 대하여 '성찬이가 찾은 최고의 한우'라는 제목으로 다음(DAUM) 블로그에, 자하철 무가지 「포커스」에는 '한우의 등급, 이렇게 결정된다', 드라마 「식객」을 통해 본 한우의 등급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어느 덧 슬슬 허기를 느낀 우리 일행이 점심식사를 위해 도착한 음식점은 이력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판매장과 같이 있어 진열된 고기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로 '쇠고기이력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직접 조회를 해보며 이력제의 마지막 단계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는 한우로 만든 맛난 불고기로 점심을 먹었다. 이후 흥성축협가공장에서는 쇠고기가 부위별로 정형되는 과정과 하나의 도체가 각 부위별로 나뉘질 때 '개체식별번호'가 관리되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병욱 농가는 한우 사육이 25여년 이라며, 등급제에 대하여 묻자 "내가 키운 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이웃과 선의의 경쟁으로 좀 더 좋은 사육환경과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이력제는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웃어 보였다.

이렇게 농가 방문을 끝으로 바쁘게 진행된 동행취재는 마무리 되었다. 이날 보여준 그들만의 새로운 시각과 감각,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쓴 농촌관련 기사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내지방도 조건표와 비교 중



개체식별번호로 직접 조회



병욱 농가의 우사 앞에서 찰칵



로일간지 「포커스」에 게재

기 고
축
쇠 고 기
이 력 추 적 제

* 쇠고기 이력추적제 — 2008년도 하반기 '시·도 등 관계기관·단체 점검회의'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최대휴 팀장 주재로 2008년도 하반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해 '시·도 등 관계 기관·단체 점검회의'가 지난 7월 31일(목)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08년도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과 시·도별 추진현황 및 대책 설명 그리고 토의가 이어졌다.